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패널을 들고 사진을 찍어 롯데하이마트 공식 SNS에 게시했다. 황 대표는 "어린이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내외 재계서 부는 'ESG 경영' 열풍 이유는?

“ESG로 투자 공략”...너도나도 ‘올인’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사회영향·투명경영 등 중시 세계 ESG투자 규모 8년 새 3배 ↑ ESG위원회·채권 발행 등 가속화 '착한기업' 소비하는 MZ세대 영향도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ESG는 기업 경영이나 투자 시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영향, 투명경영 등 비재무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공헌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이 확대 발전된 개념이다.

●주요 대기업, ESG위원회 설립·채권 발행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ESG위원회 설립, ESG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ESG 경영을 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더해 기존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지속가능경영 추진센터로 격상했다. 또 전사 차원의 협의기구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주관으로 격상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지속가능경영을 우선순위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도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해 ESG 정책과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게 했다. 현대

차와 기아는 최근 각각 4000억 원, 3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도 발행했다.

SK는 수펙스추진협의회가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에너지·화학위원회 대신 환경 관련 의제를 다룰 환경사업위원회를 만들었다. LG와 상장 계열사들도 올해 이사회 내 ESG 경영의 최고 심의 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환경·안전, CSR, 고객 가치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롯데는 2016년부터 환경과 공정거래, 사회공헌, 동반성장 등 ESG 항목을 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그룹 차원의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자산 1조 원 이상 계열사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투자 유치 위해 ESG경영에 올인

그렇다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처럼 ESG경영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 투자 유치 여부가 1순위다. ESG가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ESG 점수가 낮으면 투자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3000억 달러(1경5029조 원)에서 2020년 40조5000억 달러(4경5765조 원)로 8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단위:달러)



※ 자료: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한국 ESG 투자자산 규모 (단위:달러)



※ 자료: 국제금융센터

발하는 등 ESG 투자가 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ESG 기반 투자 원칙을 세우고 ESG에 기반한 주주 의견 결구를 행사하고 있다. 블랙록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우선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기록하고, 수익의 25% 이상이 석탄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또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기후재무정보공개TF(TCTF)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반대 투표를하겠다고 언급했다. 스웨덴 볼보의 ESG 공시 미비를 이유로 이사회 의장 연임을 반대한 것이 대표 사례다.

●가치소비 증시, MZ세대 영향도

일각에서는 가치소비를 중시 여기는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합성어)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의 소비트렌드는 일명 '미닝아웃'으로 대표된다. '미닝'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백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out)을 결합한 신조어로 사회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치가 있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소비하는 이들을 겨냥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ESG경영에 신경 써 '착한기업'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장기적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현재 ESG경영 관련 국제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이중 지표화하기 좋고 관심이 높은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했다. 또 "ESG 활동이 드러나도록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ESG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로봇캐디와 골프치고 로봇이 음식 서빙” ‘테크 투어리즘’, 호텔 신기술 체험 인기

국내 호텔들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비대면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면서 이런 호텔의 색다른 신기술을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 '테크 투어리즘(Tech+Tourism)'이 새로운 여가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지능형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 로봇이 호텔 서비스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경주 코오롱호텔은 3월부터 호텔 부대시설인 가든 골프장에 국내 최초로 AI 골프캐디 서비스 '헬로우캐디'를 도입했다. 1인 1캐디 역할을 하는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 카트로 골프백을 싣고 골퍼를 따라다니면서 코스 정보, 앞 팀과의 거리 알람 등 실제 캐디처럼 정보도 제공한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는 호텔리조트 업계 최초로 스마트 로봇 토털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로비의 웰컴로봇부터 객실 배송로봇, 실내와 레스토랑의 서브로봇(사진), 체크인아웃을 도와주는 미니봇 등 네 가지 로봇을 활용한다. 리조트를 이용하는 전 동선에 로봇 서비스를 도입한 첫 시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L7 강남도 객실에 호텔용품용 로봇이 배달해 주는 '딜리버리 로봇'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객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웨스틴조선 서울의 '필 더 웨스틴엔터테인먼트' 패키지는 LG유플러스와 협업해 VR기기와 랜선여행 콘텐츠를 고객에 제공한다. 객실에서 여행 기본을 낼 수 있다. 롯데호텔 서울의 '2021머스트 비 스트로베리:와일드 퓨처' 프로모션에서는 증강현실을 활용했다. 멸종 위기 코끼리 보호를 위한 행사로 증강현실 속 코끼리 촬영한 인증샷으로 SNS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 인수 검토

지분 100% 확보 시 배당금 2배 증중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 인수를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9년 신세계그룹이

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양사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가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150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별다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커피 전문점으로 성장했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 2조 원을 눈앞에 두는 등 알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지분 인수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분 인수가 성사되면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2배로 늘어난다.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가

신세계 이마트와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에 지급한 배당금은 각 300억 원이다. 다만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모두 보유해도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계속 내야 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에 상표와 기술사용 로열티로 매출의 약 5%를 지불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

어려울때 “나” 누면 “우리”가 되는 브랜드!

692

배달전문

고기에 찍어 먹는 풍미 가득한

692서서갈비만의 특제소스!

국내산 돼지갈비가

100g 2,900원

배달 특화 브랜드

초보자도 운영가능한 체계적인 간편 시스템과 본사 경영노하우!

- ✓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방문 고객의 감소와 앞으로 비대면 영업의 해결책 배달특화 갈비브랜드
- ✓ 본사와 점주간의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가맹비 & 교육비 전액면제!
- ✓ 소형 펌수 개정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자체 시공 가능
- ✓ 미소가 절로 나는 "소울푸드"의 매력
- ✓ 인건비 걱정없는 조리 & 출서빙 시스템

점주님들에게 드리는 혜택!

- ✓ 모든 · 특정지역 1호점의 파격지원 (상담 후 결정)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기기/집기 등 본사 마진을 삭감하여 오픈지원
- ✓ 지사장으로 임명과 혜택 부여

브랜드의 경쟁력!

집에서 즐기는 숯불구이 갈비

아우티나 여행시에만 즐길 수 있는 숯불구이 갈비를 집으로 소환

차별화 된 메뉴

숯불 갈비의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소울푸드 메뉴구성

쉐프가 굽는 최상의 맛

최적화 간편 시스템으로 최상의 맛으로 구워드리는 서비스

조리&배달 시간단축

원재료별로 조리시간 축소와 배달 시간 최소화

배달

방문

Take out

가맹점 및 지사 모집

1833-4894

http://www.692.kr

점포형

배달전문형

업종변경

창업

1833-4894

배달포장